

가족과 함께 봄맞이 녹색 대청소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 버리고 빈 자리에 텃밭 꾸민다

꽃샘추위는 남아 있지만 남쪽 지방에는 꽃들이 피어나고 불어오는 바람 속에도 봄기운이 가득하다. 한겨울 내내 닫아두었던 창문을 열고 가슴으로 봄을 맞이하자. 봄맞이에는 대청소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3월에는 녹색을 테마로 대청소를 해보자.

청소(淸掃)는 ‘더럽거나 어지러운 것을 깨끗하게 쓸어내는’ 것이다.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버리고, 집안의 더러워진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내면 주택의 생명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녹색 대청소는 이러한 청소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물건을 버릴 때 재활용을 더 많이 생각하고, 깨끗하게 닦을 때는 화학 세제 대신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녹색 청소 3단계

스텝 1 사용하지 않는 물건 버리기

청소의 시작은 잘 버리는 데서 출발한다. 이제는 남들보다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차별화시켜 주는 시대는 지나갔다.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활용의 시대다.

제대로 잘 버리는 방법은 쉽게 버려지지 않는 것부터 버리는 것이다. 바로 옷과 책이다. 우선 버리는 기준을 정한다. 최근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과 펼쳐보지 않은 책은 버리는 것으로 정한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단기간에 마스터해 보겠다며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지금은 거들떠도 안 보는 각종 어학 교재, 비싸게 주고 샀다가 살이 찌서 못 입는 옷 등이 1순위다. 진열장과 서랍 속도 한 번 뒤져 보자. ‘이게 여기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드는 물건은 버려도 된다. 그 물건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냈다. 일단 버리고 나면 청소하기가 쉬워지고, 청소한 뒤에도 효과가 오래 간다.

버릴 옷과 책, 가전 제품, 생활 소품, 잡동사니를 분류해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 분리 배출 기준에 따라 버린다. 그냥 버리기에 아까운, 쓸만한 물건이 많을 때는 주변의 ‘녹색 나눔 장터’를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된다.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팔아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의미도 찾고, 친환경 화장지·친환경 수세미 등 각종 친환경 제품에 대한 체험 행사를 즐길 수도 있다.



스텝 2 천연 세제 · 친환경 세제 사용하기



화학 세제의 문제점은 광고에 비해 턱없이 떨어지는 세척력에도 있지만 하수에 섞여 흘러나간 뒤 하천을 오염시킬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계면활성제와 세제, 유연제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이미 오래 전에 조 단위를 넘어섰고, 생활 하수 비중은 공장 폐수를 웃돌 정도라고 한다.

화학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천연 세제를 이용해 집안을 안전하고도 깨끗하게 닦아낼 수 있다. 베이킹 소다 · 탄산소다 · 알코올 · 구연산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천연 세제를 마련할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할인 매장이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친환경 세제를 구입해 사용한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친환경 천연 세제라는 광고 문구에 현혹돼 비싼 제품을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 마

크 등을 확인하거나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친환경 상품 종합정보망(<http://shop.ecoi.go.kr>)을 활용하면 믿을 만하다.

천연 세제를 이용해 청소한다고 해도 너무 많은 물을 사용하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오히려 녹색 청소를 한다는 말이 무색해진다. 천연 세제를 사용하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청소하면 명실상부한 녹색 청소가 가능해진다.

청소는 밖에서 안으로, 위에서 아래로 한다. 집안에서는 베란다→거실→욕실→주방→침실 순이다. 베란다는 먼저 치우고 나면 집안 물건을 내놓고 청소하기가 편해진다.

방 한 칸씩 청소하기보다는 집안 전체를 먼저 털기 · 청소기 흡입 · 걸레질 등과 같이 공정별로 진행하면 청소 시간이 단축된다.

스텝 3 녹색 정원 · 텃밭 꾸미기

집안에 있던 물건을 버림으로써 무언가 허전함을 느낀다면 작은 정원과 텃밭을 꾸미는 것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환경도 살리자.

포장재로 사용되는 빈 스티로폼 상자에 흙을 채우면 녹색 정원이나 텃밭을 만들 수 있다.

고추 · 상추 모종을 사서 스티로폼 상자에 심으면 관상용으로 충분히 즐길 수 있다. 급할 때 된장찌개에 넣어 먹는 풋고추는 맛과 재미가 쏠쏠하다.

아파트 베란다에 스티로폼으로 꾸미는 녹색 정원과 텃밭에 필요한 거름은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다. 잡동사니를 버리고 비운 자리에 녹색 식물



을 통해 좋은 기운을 자리잡게 하면 예전의 물건들이 시나브로 다시 자리를 채우는 일도 막고 정서도 안정된다.

■ 글/배순영(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 박사(소비자학))



천연 세제는 어떤 것이 있나

- **베이킹 소다**는 세정 · 탈취 작용을 한다. 따뜻한 물에 풀어 솔에 적신 뒤 구석구석 문지른다. 이때 찬물에 구연산을 넣어 녹인 뒤 뿌려주면 묽은 때도 잘 벗겨진다. 베이킹 소다는 약알칼리성이고 구연산은 산성이다. 모두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고, 두 가지를 사용해서 청소하면 하수를 쉽게 중성화할 수 있다. 약국이나 슈퍼마켓, 대형 할인 매장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 **탄산소다**는 단백질이나 기름때, 묽은 때 제거에 효과적이다. 맨손으로 사용하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베이킹 소다와 1:1로 섞어서 사용한다.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밀폐 용기에 담아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알코올**은 전기 제품 등을 닦는 데 유용하다. 요즘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에션셜 오일 등을 첨가해 아로마 알코올로 사용하면 방향(芳香)의 효과가 있다. 주의할 것은 가스 불을 끄고 밸브를 잠그며, 전기 코드를 뽑는 등 알코올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 조치를 취하고 환기를 시키면서 청소하는 것이다.
- **EM 세제**는 식기를 닦는 데 특히 유용하다. 사람에게 유익한 미생물로 만든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용 미생물군) 세제는 동사무소나 지역 환경 단체 · 소비자 단체에서 무료로 나누어주기도 한다. 친환경 매장에 가면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다.